

“추운 겨울, 따뜻한 나눔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월드비전광주전남본부, 광고협에 난방비 1천만원 전달

월드비전광주전남사업본부(본부장 정병원)는 14일,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정석은 목사)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난방비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월드비전광주전남본부가 광고협을 방문, 소외어린이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월드비전의 사명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계속되는 고물가와 한파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에너지 빈곤’에 처한 아동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전달된 1,000만 원의 후원금은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를 통해 난방비 지원이 절실한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및 위기 아동들에게 전달된다.

광주전남사업본부장은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것은 월드비전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라며,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겨내고 희망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석은 광고협대표회장은 “지역사회의 아픔에 공감하며 나눔에 앞장서준 월드비전에 감사드린다”며, “광주 지역 교회들과 협력하여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역에 더욱 힘쓰고,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을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월드비전은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 가정,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파트너와 함께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기독교 글로벌 NGO다. 광주전남사업본부는 앞으로도 교회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아동들의 풍성한 삶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주정
한국고원대학교 연구교수

▶지난호에 이어서

딸이 니스를 해서 어렵게 다사랑 병원에 입원시켜주셨고, 저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해서 입원비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늦게 안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제적 배려는 교육청의 도움이 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원치 않은 임신에 하는 학생조차도 버리지 않고 비밀리에 공부를 가르쳐서 원하는 학교로 돌려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가슴 벅차 울었습니다.

큰 사건이 날 때마다 부모의 심정

교가 있기에 우리 딸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과분한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저의 딸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숨만 쉬고 답답한 마음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타올랐습니다. 화병이 나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용연학교가 있고 진심어린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많은 위로와 힘을 실어 주셨기에, 지금은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가 광

어느 학부모의 편지-2

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도 탄원서를 써주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과분할 정도로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수호천사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더 할 수 없는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 이렇게 좋은 용연학교가 없었다면 우리 딸과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좋은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뒷받침해주시는 장학관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딸똥꾸러기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 좋은 선생님들과 용연학

주에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넘치는 사랑 과분하지만 영원히 간직합니다.

어려움을 다독여 주시는 장학관님! 그리고 용연학교 선생님!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남으면 함께 나누려는 진심 어린 마음에 존경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용연학교가 있기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둡지 않습니다. 훌륭하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 딸은 이 고마움을 언젠가 이 사회에 아니 이 광주에 돌려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제로웹 업무협약

“k-디지털 돌봄체계 본격 가동, 마을 공동체로 연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마포구 대흥동을 거점으로 ‘정책·현장·기술’을 결합한 지역 기반 통합돌봄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생애 주기별 돌봄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현일)과 디지털 라이프 케어 전문 주식회사 제로웹(대표이사 이재현)은 1월 20일 마포구 엘드림통합돌봄센터에서 ‘K-디지털돌봄’ 체계를 가동하고, 마포구 대흥동을 중심으로 한 ‘케어벨 생명돌봄’ 실증(P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독사 예방을 넘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지역 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며 존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공백을 줄이는 실행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식에는 (사)엘드뷰티앤즈, (사)해돋는마을, 신생명나무교회, 대흥동종교(교동)협의회 등 지역 내 주요 돌봄 주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양 기관은 지자체 행정만으로 충족히 메우기 어려운 현장 돌봄의 공백을 지역 공동체의 관계 기반 돌봄과 디지털 기술로 보완하는 ‘민·관·종(民·官·宗) 연합형 거버넌스 모델’을 대흥동에서 먼저 실증한 뒤,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현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왼쪽)과 이재현 제로웹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다.

장현일 원장은 “초고령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시대에는 행정, 기업, 종교계만으로도 해결이 어렵다”며 “대흥동에서 검증된 생명돌

봄 모델을 통해 어르신이 지역 사회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기독병원, 위드인행복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지역의료 협력 강화...퇴원환자 연계·통합돌봄 체계 구축

광주기독병원은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위드인행복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9일 광주기독병원에서 열렸으며, 광주기독병원과 위드인행복재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돌봄 서비스 연

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돌봄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재 양성사업 협력을 통한 보건 의료 인력 역량 강화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연계 활동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간 연속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기독병원 관계자는 “이번 업



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환자 중심의 연속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기독병원이 위드인행복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원환자 연계 및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농어촌·미자립교회, 군·경 선교 및 기독교 선교기관에

미션리 신문을 보냅니다

“밝은 크리스천 따뜻한 세상”을 추구하는 미션 21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각 선교단체,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등에 신문 보내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복음화와 크리스천 문화 창달을 위해 복음과 함께 교회의 소식을 담아 매주 발행되는 미션21 신문보내기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2026년 7월 창간 27주년을 맞게 되는 미션21이 이제 문서선교의 보다 넓은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CMS에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부 월 5,000원, 1년 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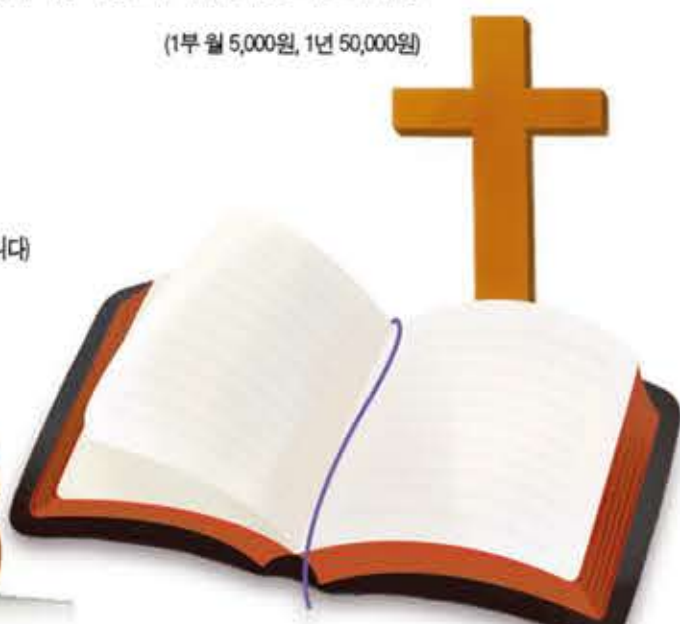
① 정기후원: CMS 가입

- 미션21 홈페이지(ms21.tv)에서 CMS 가입
- CMS 신청서 작성 후 반송봉투에 넣어 신문사로 우송
- ※신문사로 연락주시면 반송봉투가 들어있는 CMS신청서를 자력으로 보내 드립니다

② 일시후원: 계좌이체

- 농 협: 301-0090-0060-71 예금주: (유)미션21

NEWS



작성하신후 휴대폰으로 찍어서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C.P: 010-4002-7824 / e-mail: ph2930@nate.com

미션리 정기구독 CMS 출금이체 신청서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복음 담은 신문 미션21이 군부대, 소년원, 교도소, 도시 및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도서벽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문서선교에 동참해주세요.

신청인 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계좌정보	
은행명:	
예금주:	
지정출금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알 6자리만) 또는 사업자번호:	
금액(매월)	☐ 5,000원 ☐ 기타 ()원 ()부
출금일	☐ 5일 ☐ 15일 ☐ 25일 ☐ 기타 ()일
후원기관	☐ 법인 ☐ 기타 ()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또는 서명

정통 기독교 주간신문 **미션리**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9 (동삼빌딩 3층)
전화: 062)367-9108, 364-9109 / 팩스: 062)367-9108

◆간원가정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본 신문의 판매처에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지점명, 계좌의 종류, 출금일, 출금금액, 출금회차, 계좌의 잔액, 계좌의 개설일, 계좌의 해지일, 계좌의 개설일, 계좌의 해지일, 계좌의 개설일, 계좌의 해지일)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년 월 일